

번역과 언어 성격론

전성기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Jon, Sung-gi, Translation and characterology of languages.

Since structural linguistics, linguistic characterology of human language, such as arbitrariness, linearity, systematicity has been given academic attention in a number of occasions. Little was said, however, about characterology of languages. Concerning translation and translation studies, several descriptions of Comparative Stylistics and synecdoque received attention. But the textual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s of the source and target languages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and resolve different textual translation problems, such as 'literal translation', 'good translation' or 'faithful translation'. This paper will look at some succinct discussions on *Comparative Stylistics*, a seminal work by Vinay & Darbelnet (1995). Lee H.J. (2009)'s English-Korean translation will be discussed in relation to orthonymy, a concept well represented in Chevalier/Delpont (1995). The conclusion will point out that the textual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s of the source and target languages can lead to the reconsideration of translation process and of the problem of creativity in translation.

Keywords: comparative stylistics, characterology, orthonymy, translation process, creativity

■ 차례

- | | |
|--------------------|--------------|
| I. 들어가는 말 | V. 번역과 정언성 |
| II. 번역과 비교문체론 | VI. 번역 과정 재고 |
| III. 비교문체론과 언어 성격론 | VII. 번역과 창의성 |
| IV. 영한번역과 언어 성격론 | VIII. 나가는 말 |

I. 들어가는 말

인간 언어의 성격에 대해 지금까지 다양한 지적이 있었다. 특히 구조주의 언어학 이래로 언어의 기호성,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을 비롯하여 체계성, 본질성, 개방성 등이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지적되었다. 이들은 모두 언어의 ‘언어학적 성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연어의 ‘유형적 성격’ 역시 ‘언어학적 성격’의 한 모습이나, 이러한 언어(학)적 성격들이 번역과 직접적 관련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번역과 관련하여 언어 성격을 본격적으로 살핀 연구들은, 비네와 다르벨네(Vinay & Darbelnet)의 『비교문체론』을 비롯한 다양한 비교문체론 계열 연구들과¹⁾ 언어들의 서로 다른 제유의 중요성을 강조한 르데레르(Lederer)나 리드닝(Lydnig) 등을 제외하면,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대조분석은 그간 적지 않은 연구들을 축적해 왔지만, 언어 차이들에 대한 연구가 번역에 대한 직접적 기여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아마 텍스트번역에서는 맥락의 고려가 핵심이기 때문일 것이다. 번역학에서도 그간의 논의는 직역이나 의역이나, 충실성이나 가독성이나 등 번역의 방법이나 평가 혹은 비평에 집중되었을 뿐, 이들의 언어 성격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 야콥슨(Jakobson, 1963, p. 80)이 일찍이 “언어의 중심 문제이며 언어학의 핵심적 대상”이라고 지적한 ‘차이 속에서의 등가’ 문제²⁾의 성찰에서 언어 성격 문제가 소홀히 여겨져온 것이다. 오늘날 대개의 언어학자들은 특정 언어의 ‘우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기호적 전능성’(l’omnipotence sémiotique)에서는

-
- 1) 말블랑(Malblanc, 1968), 스키페/인트라바이아(Scavée/Intravaia, 1979), 슈케/파이야르(Chuquet/Paillard, 1987) 참고.
 - 2) 야콥슨(1963, p. 84)은 ‘언어들은 표현할 수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표현해야 하는 것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지적한다.

언어들 사이에 근본적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서로 다른 성격의 언어들에 어떻게 속깊은 소통에 이를 수 있는가, 이는 중요한 번역인문학적 문제이다. 이제 번역과 관련하여 언어 성격론을 포괄적으로 다시 살펴야 할 시점에 우리는 와 있다.